

‘유스퀘어문화관’ 역사 속으로... 시민들 “아쉽다”

광주신세계 확장... 15년만에 폐관 식사·휴식 한곳서 ‘상징적 공간’ “영화관람 등 문화생활 공백” 걱정 일부 매장 퇴점 거부한 채 영업 금호 “사측 권한 밖 무리한 요구”

광주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문화관이 최근 공식적으로 문을 닫으면서 지역민들이 아쉬워하고 있다.

지난 2009년 5월 2만5121.6㎡, 6층 규모의 복합문화시설로 개관한 유스퀘어문화관은 올해 3월 광주신세계가 복합쇼핑몰 확장 건립을 위해 유스퀘어 부지와 터미널 사업권 등을 금호고속으로부터 4700억원에 매입하며 폐관이 결정됐다.

금호아트홀·동산아트홀·금호갤러리 등은 지난달 30일 폐관됐고 CGV광주터미널점 역시 올해 12월까지만 운영된다.

유스퀘어문화관이 공식 폐관된 지 2주일이 지난 17일 찾은 이 곳은 대부분 가게들이 문을 닫았지만 일부 영업 중인 상점은 이용객들로 붐볐다.

방문객들은 유스퀘어문화관 폐관으로 문화생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우려와 아쉬움을 표했다.

서점에서 책을 구입하기 위해 유스퀘어

를 방문한 이모씨는 “식사·휴식·문화생활을 모두 할 수 있는 광주의 상징적 공간이었는데 폐관 소식을 듣고 씁쓸했다. 평소 자주 찾던 카페와 식당이 모두 문을 닫아 허탈하다”며 “기존보다 3배 규모의 광주신세계백화점이 들어설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빨라야 4년 후 완공인데 그 사이의 문화생활에 공백이 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영화 관람을 위해 CGV광주터미널점을 찾은 박주연(18)씨는 “거주지와 가까운 영화를 보러 항상 찾는 곳”이라며 “문화관 폐관으로 앞으로는 영화를 보기 위해선 다른 곳을 가야 해 이동이 불편할 거 같다”고 말했다.

김희진(31)씨도 “영화관람이 취미라 평소 자주 방문하는데 CGV 광주터미널점 폐관 소식을 듣고 놀랐다”며 “광주·전남 유일한 아이맥스 상영관이 이곳에 있는데 앞으로는 아이맥스 영화 관람을 위해선 전주까지 원정 관람을 가야 할 판”이라고 했다.

광주·전남에서 유일하게 아이맥스, 스크린X 등의 특별관을 보유하고 있는 CGV광주터미널점이 운영을 종료하면 광주·전남에서 가장 가까운 아이맥스 상영관은 CGV전주호자점으로 거리가 멀어져 시·도민의 불편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광주 서구 광천동에 위치한 유스퀘어문화관이 지난달 30일 폐관했다. 17일 유스퀘어 문화관에 입점한 대부분의 음식점에는 영업종료 안내문이 붙어있다.

유스퀘어문화관에 입점한 20여개의 음식점과 카페 중 퇴점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4곳은 여전히 영업 중이다.

한 프랜차이즈 식당의 점장은 “계약기간은 6월까지였는데 본사 대표와 금호 측 간 합의가 안 돼 아직 운영 중이다. 각 식당, 매장마다 상황이 달라 퇴점 합의가 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의 영업기간 10년을 보장하고 있는데 오픈한 지 10

년이 안 된 가게를 중심으로 상인들의 불만이 커 협의가 순탄치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신세계는 지난 1일 금호고속으로부터 유스퀘어문화관 부지를 양수받은 뒤 터미널 관련 사업을 모두 금호익스프레스에게 위탁했다.

터미널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금호익스프레스 측은 일부 임차인들이 무리한 요구를 해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금호익스프레스 관계자는 “이미 대부분의 상가 임차인들과 원만한 합의에 도달했다. 아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소수의 임차인들과도 적절한 보상과 타협을 통해 협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미 신세계에 건물을 팔았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들은 적절한 보상과 조율을 통해 순차적으로 퇴점시키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차보호법에 해당되지 않은 10~15년 이상 된 업체들이 타 지역의 신세계백화점 입점 등 사측 권한 밖의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며 “입점 10년 미만 가게에 대해선 위치를 변경해 새로 오픈하는 등 합의점을 제시했지만,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CGV광주터미널점 재입점에 대해선 “광주·전남 유일한 아이맥스 보유 상영관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시·도민들의 아쉬움은 당연히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재입점 여부는 불투명하다. 12월 폐관은 아직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광주신세계는 이번 확장을 통해 갤러리, 오픈형 대형 서점, 옥상 공원, 루프탑 레스토랑, 팟파크 등을 갖춘 복합쇼핑몰로 재탄생한다. **글·사진·박찬기**

권익위, 광주 준공 지연 우려 아파트 조정안 마련

광주 지역에서 추진 중인 주택건설사업이 도로개설 이행의 어려움으로 준공 지연 위기에 처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한 관계기관들의 협력으로 정상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17일 오전 광주 서구 법무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어 서구 쌍촌동 600 일원에서 추진 중인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민원의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해당 민원 사업은 900세대 아파트 건설공사로 내년 3월 입주 예정인데, 사업의 승인조건인 인근 도로 개설 이행을 앞두고 문제가 불거졌다.

당초 사업자는 아파트 주변에 도로를

놓아 기부채납해 주변 교통량을 해소하기로 약속하고 주택 건설 사업 승인을 받았지만, 일부 도로 개설 예정지에 법무부 소유 땅이 포함되면서 문제가 빚어졌다.

이날 현장실사에 나선 국민권익위는 최종 조정안을 마련, 법무부가 도로 개설 전용 토지를 제공하되 청사 부지 내 호송버스 주차·정차 위치에 차고를 증축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해당 과정에서 소관 지자체인 광주 서구에서 건물 증축과 도로 개설 관련 행정 절차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쉽게 풀리지 않는 어려운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성아 기자**

7년 만에 지리산국립공원서 ‘흰 오소리’ 포착

2015년·2017년 이후 세 번째 알비노·루시즘 돌연변이 추정

지리산국립공원에서 희귀한 흰 오소리가 7년 만에 포착됐다.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는 야생생물보호단이 지리산국립공원의 야생동물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7년 만에 흰 오소리를 다시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흰 오소리는 야생생물보호단이 야생동물을 위해 설치한 무인센서카메라에 찍혔다. 해당 흰 오소리는 색소 결핍증인 알비노 또는 루시즘 돌연변이로 추정된다.



앞서 지난 2015년 지리산에서 국내 최초로 흰 오소리가 발견됐다. 이후 2017년 2년 만에 다시 확인됐다. 올해의 경우 7년 만에 재확인된 것이다.

이번에 발견된 개체는 지난 2015년과

2017년에 확인된 위치와는 4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 알비노 또는 루시즘 돌연변이 출현할 확률은 수만분의 1에 불과해 예로부터 흰색 동물은 상스러운 상징으로 여겨졌다. 흰색 야생동물은 사람이나 다른 포식자의 눈에 발견되기 쉬워서 일반 동물들에 비해 자연 생존율이 낮은 편이다.

차수민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이번 발견은 지리산의 생태계가 잘 보전돼 있다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기적인 순찰을 강화해 야생동물의 서식지 보호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아 기자**


자연과 공존하는 프리미엄 호텔리조트
라마다프라자호텔 & 씨원리조트 자은도

개장 2주년 기념

SO COOOOOL~


PKG 특가 이벤트

판매기간 ~7/23 투숙기간 ~9/30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www.class-one.co.kr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면 자은서부1길 163-101



C-ONE ISLAND
HOTEL & RESORT
JAEUNDO